

추석 가정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가 559장 다같이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와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가족 중에서 기도자

성경봉독 창27:18-29 다같이

말 씬 세상을 살아갈 때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창27:18-29)

오늘 말씀은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통해 우리 가족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며 함께 은혜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선한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축복권을 얻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네 번이나 속였습니다.

그 결과 축복권을 얻었지만 형과 우애가 파괴되고 정다운 집을 떠나 수십년을 객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분명, 결과는 좋은 것이었지만 방법이 선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험난한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결과만 선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이끄는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 오셔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친히 섬기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선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도 항상 선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므로 우리들도 선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좀 더디고 늦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선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삭은 인간적으로 멋진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막으시고 연약한 야곱을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창25: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여기에서 큰 자는 에서이며 어린자는 야곱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큰 아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창25:34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것을 더 좋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야곱은 에서보다 훨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연약한 야곱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심을 느낄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족이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땅의 기름진 복, 세상을 다스리는 복과 더불어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이 복들은 창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으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러 모습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로, 어떤 사람은 관계의 축복을, 어떤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들을 이웃을 섬기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